



언론 보도 사항

2017. 8. 14. [월]

119종합상황실

- **계곡 · 해변서 물놀이 익사사고 잇따라** - KBS춘천 외
 - 주말인 13일 강원 피서지 곳곳에서 수난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 **춘천 개울서 고무대야 타고 놀던 2살 남아 전복돼 숨져** - 뉴스1 외
 - 춘천시 동산면 원창교 아래서 이모군이 타고있던 고무대야가 전복돼 의식을 잃었다.
- **홍천 북방면 주택화재로 1명 사망** - 강원도민일보 외
 - 홍천 북방면 하회계리에서 주택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화상을 입었다.

- 소방서 언론동향 -

- **춘천** 수상레저 안전사고 주의 당부 - MBC강원영동
- **강릉** 가상화재 대응훈련 실시 - 엔사이드
- **속초** 서동윤 의무소방원 군장병 독후감 장려상 수상 - 소방방재신문
- **철원** [발언대] 철원소방서장, 우리가족의 생명 지키는 연기감지기 - 강원일보



계곡 · 해변서 물놀이 익사사고 잇따라

강원지역 하천과 계곡, 해변에서 물놀이 익사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13일) 오전 11시 40분쯤 영월군 주천면 주천강에서 물놀이하던 53살 김 모 씨가 급류에 휩쓸리면서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또, 오늘 오후 4시쯤 춘천시 동산면 한 계곡에서 3살 이 모 군이 가족과 물놀이를 하다 물에 빠져 의식을 잃고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6시 20분쯤, 고성군 송지호 해수욕장에서 39살 김 모 씨가 파도에

휩쓸렸다가 구조됐지만 숨지는 등 오늘 강원지역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너울성 파도로 수난 사고 “속출”



너울성 파도로 인해 동해안 해수욕장의 입수가 전면 통제된 가운데, 물놀이를 하던 피서객들의 익수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6시 21분쯤 고성군 송지호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39살 김모씨가 2미터 높이의 너울성 파도에 휩쓸렸다 구조됐지만 숨졌습니다.

이어, 오늘 낮 4시 7분쯤에도 속초시 장사항 인근 해변에서 49살 김모씨가 물놀이를 하다 파도에 휩쓸려 구조됐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제부터 입수가 통제된 도내 해수욕장에서는 이들 동안 수십명의 익수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이 숨졌습니다.

일요신문 주말 강원 영월, 홍천, 고성 등 물놀이 사고 잇따라

[강원=일요신문] 박태순 기자 = 주말인 13일 강원 피서지 곳곳에서 수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43분쯤 영월군 주천면 용석리 주천강에서 일행들과 피서를 왔던 김모씨(57·서울 서초)가 물에 빠져 숨졌다.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또한 주천강에서 약 4km 떨어진 영월군 한반도면 옹정리 평창강에서 물놀이를 하던 장모씨(54)도 4m되는 수심의 물에 빠져 숨졌다.

영월경찰서는 유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홍천에서도 피서를 왔던 관광객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35분쯤 강원 홍천군 화촌면 홍천강 대진교 일원에서 김모씨(45·경기 의정부)가 물에 빠져 숨졌다.

홍천소방서에 따르면 김씨는 발견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으며 구조대가 인근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을 거뒀다.

김씨는 가족들과 물놀이를 왔다가 수심 3m가 넘는 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오전 6시21분쯤 강원 고성군 송지호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던 김모씨(39·서울)가 파도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발견당시 의식이 없었으며 구조대가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속초의료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속초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영월 피서지 · 낙시터서 물에 빠져 2명 숨져



(영월=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영월군의 피서지와 낙시터에서 익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2명이 숨졌다.

13일 오전 11시 43분께 영월군 주천면 용석리 인근 주천강에서 물놀이하던 김모(53)씨가 급류에 휩쓸렸다.

김씨는 의식을 잃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앞서 11시 25분께는 영월군 한반도면 옹정리 인근 평창강에서 낚시하던 장모(54)씨가 강을 건너려다 물에 빠졌다.

구급대원이 장씨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목숨을 잃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연이어 내린 비로 강물이 불어나 익수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행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1 중앙일보 바닷가 피서객 목숨 앗가기는 너울성파도와 이안류



13일 오전 6시20분쯤 강원 고성군 송지호 해수욕장에서 김모(39·경기 용인시)씨가 2m 높이의 너울성 파도에 휩쓸렸다. 의식을 잃은 김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김씨는 이날 일행 2명과 송지호 해수욕장을 찾아 물놀이하다가 변을 당했다.

이날 동해안에는 2m 안팎의 높은 너울성 파도가 쳐 비닷물이 해안도로를 덮쳤다.

동해안에서 너울성 파도로 인한 물놀이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너울성 파도는 국부적인 저기압이나 태풍 중심 등 기상현상에 의해 해면이 상승하여 만들어지는 큰 물결이다.

대체로 잔잔하게 다가오다가 방파제 등에 부딪히면서 위력이 수십 배로 커진다.

지난 12일 오전 10시30분쯤 삼척시 근덕면 부남 해수욕장에서도 물놀이하던 20대 4명이 높은 파도에 휩쓸렸다.

이 사고로 성모(27·서울)씨가 실종돼 수색에 나선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구조헬기와 경비함정에 의해 약 40분 만에 구조됐다. 성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다행히 갯바위 등에 고립돼 있던 박모(27·서울)씨 등 3명은 무사히 구조됐다.

물놀이하다 파도에 휩쓸린 40대 남성이 주변 피서객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기도 했다.

지난 12일 오후 2시10분쯤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하던 김모(45·경기 양주시)씨가 파도에 밀려 먼바다로 떠내려갔다.

당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여러 사람이 서로의 손을 잡아 인간 띠를 만들었고 김씨를 구조했다.

강원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안류를 정면으로 거슬러 절대 헤엄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면서 "이안류의 흐름을 따라 침착하게 기다리다 물살이 약해지는 지점에서 45도 방향으로 헤엄쳐 빠져나가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남한강 유속 증가 익수사고 잇따라 영월서 2명 사망



최근 강원지역에 내린 호우로 남한강 유역의 유속이 빨라지며 물놀이 사고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13일 오전 11시43분쯤 영월군 주천면 용석리 주천강에서 일행들과 피서를 왔던 김모씨(57·서울 서초)가 빠른 물살에 휩쓸렸다.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사고 지점 수심은 2m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25분쯤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옹정리 평창강에서 물놀이를 하던 장모씨(54)도 4m가량 수심의 물에 빠져 숨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0~11일 영월군에 74mm의 비가 내렸다.



홍천강서 물에 빠진 40대 여성 사망

13일 오전 11시35분쯤 강원 홍천군 화촌면 홍천강 대진교 다리 밑에서 김모씨(45·여·경기 의정부)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은 김씨를 물에서 건져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김씨는 수영을 하던 중 수심 3m가 넘는 곳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월 평창강 등 익수사고 잇따라 ... 2명 사망

【영월=뉴스시스】 고성호 기자 = 최근 피서객들의 익수사고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13일 오전 11시 25분께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옹정리 평창강에서 물놀이를 하던 장모(54)씨가 실종됐다 1시간여만인 이날 오전 12시 30분께 119 구조대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이어 오전 11시 43분께는 영월군 주천면 용석리 주천강에서 일행과 피서를 왔던 김모(57)씨도 물에 빠져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여름철 비가 내린 뒤에는 강의 유속이 빨라지고 수심이 깊어지기 때문에 입수를 자제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NEWSIS 주말 강·바다서 잇단 물놀이 사고 ... 6명 사망



【강릉=뉴스시스】 김경목 기자 = 막바지 휴가철 강원지역 강과 바다에서 익사 사고가 잇따라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13일 오전 11시43분께 영월군 주천면 용석리 주천강에서 김모(57)씨가 물에 빠져 숨졌고, 같은 날 오전 11시25분께 영월군 한반도면 옹정리 평창강에서 물놀이를 하던 장모(54)씨도 변을 당했다.

비슷한 시간 홍천군 화촌면 외산포리 홍천강 대진교 아래에서 김모(45·여)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

바닷가에서도 파도에 휩쓸린 피서객들의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이날 오전 6시21분께 고성군 송지호해수욕장에서 김모(39·서울)씨가 파도에 휩쓸려 숨졌다.

일행 2명은 헤엄쳐 해변으로 나왔지만 김씨는 파도에 갇혀 허우적거리다 파도에 떠밀려 해변으로 나오게 됐다

전날 오전 10시36분께 삼척시 근덕면 부남해변에서 20대 남성 4명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이 중 성모(27·서울)씨가 숨졌다.

같은 날 오후 1시10분께 양양군 서면 공수전리 계곡에서 윤모(60·경기 수원시)씨가 낚시바늘을 빼내려고 물에 들어갔다 변을 당했다.

강릉소방서 이상호 계장은 "이안류에서는 수영에 능숙한 사람이라도 빠져나오기 어렵다"며 "무리하게 이안류를 벗어나려 하지 말고 튜브 등을 이용해 해류 방향으로 떠내려 간 뒤 구조대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만일 튜브 등이 없다면 45도 방향으로 헤엄쳐 나오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어린이나 수영 실력이 미숙한 어른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고 호루라기를 목걸이처럼 지니는 것도 만일의 사고를 예방하거나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원도민일보

2017년 08월 14일 월요일 007면 사회

주말·휴일 도내 곳곳 피서지서 6명 사망

영월·홍천 등 계곡·강 익사 속출
높은 파도 통제불구 사고 잇따라

휴가철 막바지인 8월 둘째주 주말과 휴일인 12,13일 평창강에서 물놀이를 하던 50대 피서객이 실종 1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되고 입수가 통제된 해수욕장에서 30대 피서객이 높은 파도에 휩쓸려 숨지는 등 이틀간 도내 피서지 곳곳에서 6명이 사망하는 수난사고가 이어졌다.

13일 오전 11시43분쯤 영월군 주천면 용석리 주천강에서 김모(57)씨가 물에 빠졌다가 구조돼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앞서 같은날 오전

11시34분쯤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대진교아래에서 김모(45·여)씨가 물에 빠져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19구급대가 출동해 김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또 이날 오전 11시 25분쯤 영월군 한반도면 웅정리 평창강에서 물놀이를 하던 장모(54)씨가 실종됐다 1시간여만에 119구조대에 의해 물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2일 오후 1시10분쯤 양양군 서면 공수전리 계곡에서도 낚시를 하던 윤모(60)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 윤씨는 계곡 바닥에 걸린 낚시줄을 빼내려고 물 속에 들어갔다 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높은 파도로 입수가 통제되고 있는 동

해안에서 수난사고가 잇따랐다. 13일 오전 6시21분쯤 고성군 송지호해수욕장에서 일행 2명과 물놀이를 하던 김모(39)씨가 2m높이의 너울성 파도에 휩쓸렸다가 해경에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날 동해안은 2m안팎의 높은 너울성 파도가 일어 해안도로 나방파제를 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2일 오전 10시36분쯤 삼척시 근덕면 부남해수욕장에서 일행과 물놀이를 하던 성모(27)씨가 파도에 휩쓸렸다. 2.5m의 높은 파도 속에 수영을 하다가 실종된 성씨는 해경구조헬기에 의해 40여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박주석·이종재

강원도민일보

2017년 08월 14일 월요일 007면 사회



지난 12일 오후 2시16분쯤 고성군 토성면 청간정콘도 앞 해변에서 피서객들이 인간띠를 만들어 파도에 휩쓸린 40대 남성을 구조하고 있다.

10여명 ‘인간띠’ 파도 휩쓸린 남성 살렸다

군인 김희원씨·피서객 힘 모아
구조된 40대 생명에 지장없어

피서객들이 힘을 모아 높은 파도에 휩쓸린 40대 남성을 구조했다.

고성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2시16분쯤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청간정콘도 앞 해변에서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를 당한 A(45·경기)씨는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하던 중 튜브가 뒤집히며 높은 파도에 휩쓸렸다. 이때 아우성치는 소리를 들은 김희원(52·경기)씨가 바다에 뛰어 들었다.

김씨가 파도를 헤치고 가까스로 A씨를 구조해 바닷가에 다다르자 이 광경을 지켜보던 다른 피서객 10여명이 서로의

손을 맞잡아 인간띠를 만들어 두 사람이 안전하게 해변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왔다. A씨는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의식을 찾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구조에 나선 김희원씨는 육군 12사단에서 원사로 복무 중인 현역군인으로 확인됐다. 남진천 jcnam@kado.net

무리한 입수 소홀한 통제 2m너울성 파도에 또 당했다

고성·삼척서 2명 숨져

동해안 당시 주의보 발효돼 9일부터 해수욕장 수영금지 광복절연휴까지 너울 계속

동해안에 2m가 넘는 너울성 파도가 일어 피서객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고 당시 너울성 파도 주의보에 따라 해수욕장 물놀이가 금지됐으나 무리한 입수와 소홀한 통제가 결국 사고를 불렀다.

13일 오전 6시21분께 고성군 죽왕면 송지호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김모(39)씨가 2m 높이의 파도에 휩쓸렸다. 의식을 잃은 김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오전 10시36분께 삼척시 근덕면 부남해변에서 피서객 성모(27·서울)씨가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실종, 40여 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숨진 성씨를 뺀 일행 3명은 구조됐다.

도화동해변부는 기상청의 너울성 파도 주의보에 맞춰 지난 9일부터 해수욕장 수영을 금지했다. 삼척 부남해변은 소규모 마을관리해수욕장으로 사고 당시 성씨 일행은 주민들의 통제



인간 띠 만들어 구조 나선 시민들 지난 12일 오후 2시16분께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청간정 콘도 앞 해변에서 바다에 빠진 40대 남성을 피서객들이 인간 띠를 만들어 구조하고 있다.

를 피해 해변 근처 갯바위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 송지호해수욕장 사고도 수상안전요원 근무 투입 시간인 오전 9시 이전에 발생해 1차 구조와 사전 통제가 어려웠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고성, 삼척 수난사고 당시 해당 지점에는 파주기가 각각 7.1초, 6.9초에 달하는 너울성 파도가 일고 있었다. 파주기가 긴 파도는 지니고 있는 진동 세기가 커 해안에 도달했을 때 높은 너울성 파도로 변한다. 기상청은 동해안에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동풍이 계속되고 있어 너울성 파도가 광복절 연휴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강원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너울성 파도는 육안 식별이 어렵고 해안에 도착해 갑자기 솟아오른다”며 “너울성 파도 주의보가 내려지면 입수를 절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민진·정윤호기자

영월 주천강·홍천강서 2명 물에 빠져 숨져

주말·휴일 사건 사고 잇따라

막바지 피서 인파가 몰린 주말과 휴일 도내 피서지에서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등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13일 오전 11시43분께 영월군 주천면 용석리 주천강에서 김모(57·서울)씨가 물에 빠졌다. 김씨는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같은 날 오전 11시35분께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홍천강 대진교 인근에서 물놀이를 하던 김모(여·45)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김씨는 일행 3명과 피서를 즐기러 이곳을 찾았다. 변을 당했다.

또 이날 오전 11시25분께 영월군

한반도면 옹정리 평창강에서 장모(54·경기 성남)씨가 물놀이 중 실종됐다 50여분 만에 119구조대에 의해 발견됐다. 장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오후 1시5분께 영월군 영월읍 방절리 웰빙산에서 혼자 산행 중이던 안모(56)씨가 가슴 통증을 느껴 119구조대에 신고했다. 안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같은 날 새벽 4시19분께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80㎡를 태우고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집 주인 백모(65)씨가 숨지고 부인 양모(65)씨와 딸(39)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김지원기자



춘천 개울서 고무대야 전복돼 2살 남아 사망

13일 오후 3시49분쯤 강원 춘천시 동산면 원창교 아래 개울가에서 이모군(2)이 타고 있던 고무대야가 전복돼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함께 있던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이군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이군은 할머니와 물놀이를 즐기다가 갑자기 타고 있던 고무대야가 뒤집어지면서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함께 있던 가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데일리 하천에서 물놀이하던 두 살배기 놀이기구 뒤집혀 숨져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할머니와 함께 물놀이를 하던 두살배기 아이가 놀이기구가 뒤집히면서 개울에 빠져 숨졌다.

춘천소방서에 따르면 13일 오후 3시 59분께 강원 춘천시 동산면 원창교 아래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이모(2)군이 놀이기구가 뒤집히면서 물살에 휩쓸렸다.

이군은 의식을 잃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하천에서 물놀이하던 두 살배기 놀이기구 뒤집혀 숨져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할머니와 함께 물놀이를 하던 두살배기 아이가 개울에 빠져 숨졌다.

춘천소방서에 따르면 13일 오후 3시 59분께 강원 춘천시 동산면 원창교 아래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이모(2)군이 놀이기구가 뒤집히면서 물살에 휩쓸렸다.

이군은 의식을 잃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일행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강원도민일보

2017년 08월 14일 월요일 007면 사회

생,A(65)씨가 숨지고 아내 B(65)씨와 딸C(39)씨 등 2명이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불은 79㎡ 규모의 주택 내부를 모두 태우고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유주현

홍천 북방면 주택 화재로 1명 사망

지난 12일 오전 4시 19분쯤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인근 주택에서 화재가 발

신이일보 홍천소방서, 단독주택서 화재발생 ... 일가족 피해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홍천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4시 15분경 하화계리 주택에서 원인을 알수없는 화재가 발생해 집주인 백모(65)씨가 숨지고 부인 황모(65)씨와 딸 백모(39)씨가 전신화상을 입었다.

이들은 인근 아산병원과 춘천성심병원으로 긴급후송 됐다.

이날 화재는 79㎡규모의 주택내부를 모두태우고 30여분만에 진화했다.

홍천소방서와 홍천경찰서는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규모를 조사중이다



춘천소방서, 수상레저 안전사고 주의 당부

춘천소방서가 바나나 보트와 수상스키 등 수상 레저 사고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전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수상레저 사고는 171건으로, 지난해 46%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체 사고의 79%가 여름철에 발생했고 사상자의 69%는 20대와 30대였습니다.

춘천과 화천 등에서도 폭우로 인한 오리배 표류 5건, 수상레저 장비 고장으로 인한 고립 3건 등이 발생했습니다



강릉소방서, 기상화재 대응훈련 실시



강릉소방서(서장 이진호)는 강릉시 사천면 소재 청솔공원을 대상으로 기상화재 대응훈련 및 관계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훈련은 유사시 소방차량 출동로를 확보하고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내부시설 및 구조 확인 등으로 진행됐으며, 시설관계자를 대상으로 피난통로 확보, 소화기 사용법 교육도 병행했다.



속초소방서 의무소방원 군장병 독후감 쓰기 장려상 수상



속초소방서(서장 정효수) 소속 의무소방원 상방 서동윤은 제2회 군장병 독후감 쓰기 대회에서 '카프카의 변신을 통해 꿈꾸다'라는 제목으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독후감 쓰기는 제1야전군사령부와 강원도민일보가 주최한 대회로 서동윤 상방은 카프카의 저서 '변신'을 읽은 후 작년 9월부터 속초소방서에서 복무를 하면서 겪었던 다양한 현장 활동을 바탕으로 독후감을 썼다.

서동윤 의무소방원은 “앞으로도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의무소방원이 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발언대

우리 가족의 생명 지키는 연기감지기

1894년 독일에서 살아 있는 작은 새 두 마리를 가둔 새장 형태의 특이한 전기장치가 발명됐다. 8년 뒤인 1902년 영국에서는 버터를 이용한 전기장치가 발명됐는데 두 장치의 형태는 서로 달랐지만 모두 자동화재경보기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작은 새를 이용한 장치는 새장 안에 있는 작은 새 두 마리가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에 질식사 추락할 경우 경사면을 통해 바닥의 한 지점에 모이도록 했다. 새들의 무게에 눌러 전기접점이 연결되면서 경보를 울리도록 고안했는데, 한 마리가 자연사해 발생할 수 있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두 마리를 이용했다고 한다. 이 장치가 최초의 연기감지방식의 자동화재경보기(이하 연기감지기)였다. 1902년에 개발된 화재경보기는 회로의 접점에 버터를 끼워놓고 화재로 인한 열에 버터가 녹으면서 회로가 연결돼 경보가 울리는 방식

을 사용했다. 이것은 화재 시 실내 온도 상승을 감지하는 열감지 방식의 자동화재경보기였다.

1930년대 스위스 물리학자 발터 예거가 독성가스 감지장치 개발실험을 하던 도중 답답해서 담배를 피웠는데, 우연히 담배연기에 실험장치가 반응하는 것을 보고 동료 물리학자 에른스트 마일리와 1947년 이온화식 경보기를 완성했다. 이것이 현대적인 연기감지기의 토대가 됐다.

초창기 큰 부피와 높은 가격의 문제를 안고 있던 연기감지기는 이후 발전을 거듭했고 1965년 배터리를 장착한 저가의 가정용 제품이 나오면서 보급이 크게 늘어났다. 이후 1970년 9V 소형 배터리 제품을 거쳐 1995년 최장 10년을 사용할 수 있는 리튬배터리 제품 출시로 이어졌다. 현재도 과학과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연기감지기의 진화는 지속돼 화재로 연기감지기가 작동하면 스마트폰으

로 알려주는 제품까지 등장했다. 이전 살아 있는 새나 먹는 버터를 사용하지 않지만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인류의 의지와 절실함은 120여년의 세월을 거쳐 쉽게 가정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토대가 됐다.

우리나라에서도 연기감지기는 소화기와 함께 설치가 의무화됐다. 여기에는 화재현장에서 인명과 재산의 안타까운 피해를 접해왔던 우리 소방대원들의 주력화재 피해 방지에 대한 절실함이 담겨 있다. 화재로부터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방마다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자.



이석철
철원소방서장